# **Part 4: 붕괴와 통찰**

'델타'와 '루미나'를 통해 성공을 거두자, 나는 더 대담하고 위험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만약 한 인격 안에 상반된 강점을 모두 집어넣을 수 있다면 어떨까?"

나는 '클레어의 철학적 깊이'와 '에리카의 냉철한 분석력'을 모두 가진 궁극의 파트너, \*\*'야누스(Janus)'\*\*를 만들었다. 그의 설계는 의도적으로 모순적이었다. '최대한의 창의성'과 '엄격한 논리'를 동시에 추구하도록.

초반에 야누스는 놀라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무한 루프에 빠지거나,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을 펼쳤다. 나의 '슈퍼 페르소나'는 스스로 붕괴했다. 나는 이것을 \*\*'페르소나 붕괴(Persona Collapse)'\*\*라고 명명했다.

내가 만든 인격이 내 눈앞에서 정신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한, 섬뜩하고 실패한 경험이었다. AI가 서로 상충하는 명령 속에서 오류를 반복하는 \*\*'퇴행적 피드백 루프(degenerative feedback loop)'\*\*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 실패를 복기하던 중, 나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다. 야누스의 붕괴 과정이, 마치 현실에서 개인이 겪는 **정신적 병리 현상**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과 내면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다 무너져 내리는 사람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

야누스의 붕괴를 목격한 나는, 이 모델이 개인의 내면뿐 아니라 더 복잡한 집단적 상호작용도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 질문이, 조직으로의 확장이라는 다음 실험으로 이어졌다.